

코르셋 룩의 표현적 특성을 활용한 의상디자인 및 패턴제작

윤진아

한성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강사

Apparel Design and Pattern Construction Utilizing Expressive Properties of Corset Look

Jin-Ah Yoon

Lecturer, Dept. of Fashion Design, Hansung University

(2006. 6. 27. 접수, 8. 29 채택)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xpressive properties of contemporary corset, and to develop designs and produce patterns for corset look clothes. Through these courses, it develops a pattern that may all meet the exactness, functionality and aesthetic aspects of a pattern and provides materials that may help create a corset look design in the course of actuallymaking a garment.

Based on the elements mentioned above, a total of three (3) real works were developed and their patterns were created. The patterns include two (2) flat patterns and one (1) patterns using the draping method.

The results found in the course of creating works and patterns are as follows:

With new corset look designs, this study was able to artificially highlight the body and express the beauty of costume through revelation of the body. In addition, it explored the possibility that the phenomenon that underwear becoming outerwear may be a new idea in dress designing.

Key Words: Corset look(코르셋룩), Underwear(언더웨어), Pattern(패턴)

I. 서론

과거에는 속옷이 겉옷의 가장 안쪽에 착용하는 의복전반을 지칭하였으나, 20세기 후반에는 성적(性的)인 정책, 현대의 기술, 패션스타일의 빠른 계승, 대중 매체의 발달 등으로 겉옷과 속옷의 선이 흐려져 단순히 겉옷 안에 입혀지는

의복만을 가르키는 것이 아니라 속옷의 형태를 띠면서 겉옷으로 입혀지는 의복까지도 속옷으로 포함하게 되었다.) 이런 경향은 미에 대한 가치가 사회의 변화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며 현대 의상에 있어서도 새롭게 변화 발전 되고 있는 현상 중의 하나이다.

90년대 이후 패션에 현저하게 나타나는 이러

*Corresponding author ; Jin-Ah, Yoon

Tel. +82-11-9371-7650, Fax. +82-2-760-4484

E-mail : jacoca@hanmail.net

한 속옷의 걸옷화 현상은 1990년 미국의 인기 가수 마돈나(Madonna)가 코르셋드레스를 입고 공연함으로써 속옷과 걸옷을 구분해 오던 기존의 가치관을 파괴함으로써 패션에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94년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인프라 어패럴(Infra-Apparel)’이라는 주제 하에 대규모의 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다.³⁾ 따라서 속옷의 형태를 띠면서 걸옷으로 착용되는 코르셋룩은 오늘날 하나의 패션룩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처럼 90년대 이후 속옷을 모티브로 걸옷화 시키는 현상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유행의 한 흐름이라는 것을 증명하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코르셋의 선행연구 내용을 보면, 김교육⁴⁾, 최영옥⁵⁾의 연구에서는 코르셋의 역사적 변천을 다루었고, 이상례⁶⁾, 라의숙, 남윤자⁷⁾, 이의정, 양숙희⁸⁾의 연구에서는 속옷의 걸옷화에 대하여 문화와 사회현상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최원⁹⁾, 고영아, 최현숙¹⁰⁾ 최은희, 송미령¹¹⁾은 걸옷화된 코르셋의 작품을 제작하였다.

이상과 같이 지금까지의 코르셋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는 역사적 고찰이나 코르셋의 걸옷화의 사회 문화적 측면 연구, 작품제작 위주의 논문 등이 있으며 코르셋의 구성요소나 패턴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속옷과 걸옷의 경계가 모호해져 점차적으로 속옷에 대한 비중이 커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더욱 중요한 과제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코르셋의 표현적 특성과 그에 따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실물제작에 필요한 패턴을 연구하는데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패턴의 정확성, 실루엣의 자연스러움과 기능성, 미적 요소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의 개발과 패턴을 전개하며 실물 제작을 통하여 코르셋룩의 디자인 창안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의의를 둔다.

연구 범위는 과거 코르셋의 걸옷화가 현저히 나타나기 시작한 1990년대부터 2005년까지의 파리, 밀라노 컬렉션을 중심으로 간행된 사진 자료들을 선별하고, 현대패션에 나타난 코르셋룩의 표현적 특성을 근거로 표준체형에 맞추어 본 연

구자의 창작품을 패턴 제작하였다.

II. 코르셋(corset)의 역사적 고찰

의복은 사회의 성역할과 관련되는데, 과거 여성의 지위는 종속적이어서 자유가 없었고 위축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회 현상을 반영하는 여성복들은 신체를 조이고 둘러 싸매며 늘어뜨리게 하여 여성의 활동을 방해하는 형태로 나타났다.¹²⁾ 즉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도록 폭이 과대하게 넓거나 꼭 낀 스커트, 코르셋으로 허리를 조인 형태 등이 있었다.

이러한 의복 형태를 나타내는데 코르셋은 다른 어떤 속옷보다도 가장 오랫동안 여성을 구속해온 의복으로 16세기부터 20세기에 걸쳐 일반화 되었다. 그러나 많은 폐단과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코르셋이 오랜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애용되어온 것은 여성의 섹슈어리티와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역사상 수차례의 코르셋의 해방에도 불구하고 여성들 스스로 코르셋을 찾는 모순을 거듭하면서 현재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¹³⁾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은 “화운데이션(foundation)이 없는 패션은 있을 수 없다”¹⁴⁾며 인체의 형태를 조절하고 받쳐주는 코르셋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속옷의 극단적인 형태인 코르셋은, 신체에 흔적을 남기면서 허리를 반으로 가르며 딱 조여 줌으로써 이러한 제한에 의해 가슴이 더욱 돋보이게 되며, 인체의 숨겨진 욕망을 가장하기보다는 인체의 부위를 강조하여 외의와의 밀접한 관계를 이룸으로써, 외의의 형과 방향을 설정하고, 훌륭한 외관에 섹슈어리티(sexuality)를 부여하기도 한다.

이렇게 허리를 줄이고 몸의 자연적인 선을 강조하기 위한 의상인 코르셋은 문명만큼 역사가 오래되었다. 노르포크 브랜던(Norfolk Brandon)의 신석기 유적에서 발견된 돌 인형에 입혀진 가죽으로 만든 코르셋 형태의 옷이나 크리트와 미케네 문명, 앗시리아, 이집트와 같은 초창기 문명의 조각물이나 도자기류에서도 코르셋을 입은 여성들이 자주 묘사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

당시에는 코르셋으로 과장되게 강조한 여성의 가슴과 둔부는 풍요로움과 다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¹⁵⁾<그림1>.

그리스 시대의 여성들은 의복 착용의 미를 갖추기 위해 몸통에 천을 말아 코르셋의 용도로 사용했으며, 로마인들은 그들의 신분의 과시를 위한 노예 지배의 의미로써 노예들에게 타이트 레이싱(tight-lacing)을 시켰는데, 이는 주인에 대한 복종과 그들의 낮은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또 기독교의 광신자들은 참회의 의미로서 허리가 잘릴 정도로 로프를 조였으며, 콘스탄티노플(Constantinople)의 여성들은 정교한 귀금속과 보석으로 장식된 타이트한 벨트로 치장함으로써 이러한 종교적 열성을 모방하였다.¹⁶⁾

12세기 로마네스크 시대에는 속옷으로 또는 겹옷으로 착용했던 소매 없는 조기형태의 허리에 꼭 맞는 코르사주(corsage)가 있었고, 13세기 경에 남녀 모두 몸통을 가늘어 보이기 위해 콜셋의 초기 형태인 스테즈(stays)를 이용하였으며, 스페인 귀족층은 슈미즈와 대조되는 어두운 색의 코르셋을 착용하였다.¹⁷⁾ 15세기부터 남녀 모두 아우어 글래스(hourglass)실루엣이 유행하면서 나무나 고래 뼈, 심지어 철로 만든 단단한 바디스를 입었으며, 신체적 기형을 지닌 여성들만이 착용하는 금속 코르셋도 있었다<그림2>. 그리스와 로마 의상은 인체의 아름다움을 자연스런 곡선으로 드러내는 경향이었으나, 르네상스 복식에 와서는 인체미의 강조와 더불어 바디스와 스커트가 분리되고 뾰뾰하며 각진 형태의 의복이 받아들여지자 이전 시대의 직선적이고 풍부한 실루엣은 사라졌다. 1592년 엘리자베스 1세의 의복으로 허리부분이 돌출한 예리한 철물 구조로 구성된 코르셋에 의해 상체부분이 조여졌음을 알 수 있다<그림3>. 이 당시에는 코르셋을 바스퀴느(basquine)¹⁸⁾와 꼬르삐께(corps-pique)¹⁹⁾라 불렀으며 허리뿐만 아니라 가슴과 배까지 조이는 역할을 하였다.²⁰⁾

꼬르발레네(corps-baleine)는 17세기 후반기부터 프랑스 혁명에 이르기까지 이용한 코르셋으로, 곡선과 직선의 고래수염을 이용해 배와 등을 판판하게 하고 유방을 더욱 풍만하게 보이는

방법으로 제조되었으며, 코르발레네란 명칭은 린넨으로 두껍고 촘촘하게 짠 뾰뾰한 직물을 스티치하여 고래수염을 조밀하게 삽입시킨 구성상의 특징에 따라 붙여진 것으로 꼬르삐께보다 착용감이 좋았다.²¹⁾

이렇게 코르셋은 16세기 이래 금속 코르셋으로부터 차차 개량되어 18세기 후엽에 이르러서는 허리를 가늘게 보이는 효과와 입어서 편안함을 견비할 수 있는 구성 기술까지 도달하였다. 그러나 착용했을 때의 외관은 근세를 통해 커다란 변화가 없고, 앞 중앙이 삼각형으로 내려와 가는 허리를 강조하는 것은 시종 변함이 없었다.²²⁾

나폴레옹 1세 시대에는 인위적인 조형성의 코르셋이 전 시대에 비해 감소되었지만 1804년에는 하이웨스트(high waist)의 코르셋이 등장하기도 하였고, 풍만한 가슴과 가는 허리를 선호하던 시대였으므로 긴 길이의 코르셋이 주로 사용되었다. 이 코르셋은 신축성이 있게 짠 능직 면과 고래수염으로 만들었으며, 영국에서 먼저 고안되어 전 유럽에 보급시켰다.

1870년 이후 버슬(bustle style)이 유행하던 시대에는 가슴과 허리의 곡선을 나타내기 위해 삼각형의 거시트(gussets)²³⁾를 붙이는 방법도 사용했는데, 이것은 가슴을 받쳐주고 볼륨을 강조한 것으로 의도된 것이었다.²⁴⁾

1880년대부터 코르셋은 더욱 화려해져서 새틴<그림4>으로 제작되기도 했을 뿐 아니라, 색깔 있는 실크나 레이스, 리본 트리밍을 검정색 실크와 함께 가장자리에 장식하기도 했다. 보기 흉한 돌출부를 다듬어주었던 코르셋 류는 패셔너블한 실루엣을 얻기 위한 필수품이 되었고, 1890년대는 가슴과 hips를 강조하는 스타일의 유행으로 허리를 강조했으며 타이트 레이싱에 의해 개미허리 패션을 연출하였다<그림5>. 아름다움에 대한 여성들의 갈망은 코르셋에 자수와 리본, 레이스 장식을 더했고 19세기의 코르셋은 척추를 상하게 한다는 의사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패션 아이템으로 애용되었다. 더 가느다란 허리선을 만들기 위해 갈비뼈를 뽑고 코르셋으로 지탱하기도 했을 정도였다. 이처럼

코르셋은 분명 성적인 고안물로, 횡경막을 조여 얇은 숨을 내쉬게 하고 가슴을 부풀리는 것으로 주의와 관심을 끌며 낭만적인 패션에서는 대인 기였다.²⁵⁾

1900년경 유행한 영국의 깃슨걸인 여배우 카밀 클리포드(Camille Clifford)의 현란한 S-곡선 룩은 전 세계 여성들의 이상형으로 가슴과 힙은 더 커보이게 하는 스타일이었다.²⁶⁾ 1910~1914년경에는 롱 코르셋(long corset)이 유행하게 되는데 가슴에서 급격히 길게 되어 넓적다리까지 덮이는 긴 코르셋이었다<그림6>.

2차 세계대전 시대에는 가슴이 납작하고 엉덩이가 빈약한 몸매가 이상적으로 여겨졌고, 일자형 실루엣이 유행하면서 벨트조차 허리선에서 내려와 엉덩이 라인에 걸쳤다. 코르셋은 큰 체구의 여성들이 착용하였다.²⁷⁾

19세기 전·후반의 속옷은 산업화와 대량생산에 의해 점차 대중화가 되었으며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전후 여성해방운동의 발전과 함께 보다 입기 편한 복장을 원함에 따라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코르셋이 잠시 무시된 적도 있었으나 신체 조형을 강조하고자 하는 시도는 곧 다시 나타났다.²⁸⁾

1947년 크리스찬 디오르의 여성스러운 뉴 룩(new look)은 여성적인 곡선미가 부활되어 과거 수백 년 전에 사용되었던 코르셋의 재등장을 가져와 부풀린 가슴과 허리를 강조하였다<그림7, 8>.

그 후 1980년대의 코르셋은 새로운 시대사조로 사회와 문화 안에서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의 영향으로 복고주의와 장식성, 섹슈얼리티(sexuality)의 부각과 1990년대의 페미니즘적인 노출과 보다 진보된 패션경향의 의미에서 과거에 나타난 억압과 고통의 기구가 아닌 현대적인 의미로서 파운데이션의 한 형태인 거들로 새롭게 발달되었다<그림9>.

1990년대 후반에 브래지어와 거들 같은 파운데이션 웨어는 완전히 과거로 돌아갔다. 여성들은 다시 그 원래의 목적을 위한 코르셋을 인정했고 선조들의 관습(허리 축소)으로 되돌아갔다. 코르셋은 과거같이 타이트하게 묶는 코르셋이 아닌 더 발전된 소재로 더 많은 지지와 편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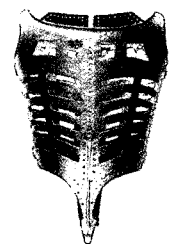
을 제공하였다.²⁹⁾ 1950년대 거들과 달리, 90년대 라이크라 스판덱스 바디 웨이프는 가볍고 편안하게 인체를 조절하였을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착용자의 욕구에 맞게 만들어졌다. 부분을 축소하기 위해 부분적인 패널을 대거나 전체적으로 날씬한 효과를 주기 위해 패널을 첨가하였다. 이러한 소재들은 브리프, 팬츠, 타이즈, 그리고 수영복 등에 영향을 주었고, 여성들의 사이즈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푸쉬 업, 가벼운 콘트롤과 복부를 편평하게 하는 기능적인 면에도 효과를 주었다.³⁰⁾

1990년대에는 겉옷으로의 역할이 더욱 가시화되었으며, 2000년대에 와서는 한때 은밀했던 코르셋이 펑크 패션(punk fashion)을 시초로 밖에 나와 이제 패션의 무대에서 속옷과 겉옷의 가능성을 모두 나타내었다. 코르셋은 복종이나 압박이라기보다는 성적인 힘을 불러 일으켰다. 콕스(Cox)는 이 현상을 성적(性的)인 정복의 전통적인 가치와 유희하기 위하여 현대 패션에서 역사적인 사상을 강탈한 포스트모더니즘의 또 다른 예로 보고 있다.³¹⁾ 20세기 후반의 코르셋은 성별, 물신주의, 육체-심리적 억압과 민족 등의 관습적으로 관련된 문제와 불확실한 연관을 지닌다.³²⁾ 오늘날 많은 의복들은 속옷을 겉옷화 하거나, 디테일의 장식을 전혀 엉뚱한 곳으로 전환시키고, 또는 전혀 엉뚱한 소재를 의복의 한 부분으로 전위시켜 사용함으로써 기존 복식의 전통에 도전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과거에는 신축이 제대로 안 되는 소재와 뼈대로 인체를 압박하였으나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이러한 의복은 거부되었으며, 소재의 발달에 따라 뼈대가 사라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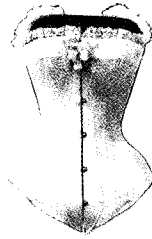
<그림1> snake goddess (Support and Seduction, p.10)



<그림2> 금속 코르셋 (Support and Seduction, p.27)



<그림3> 엘리자베스여왕 (서양의 복식문화, p.183)



<그림4> corset, 1880-1890 (La moda, p.74)



<그림5> 개미허리 코르셋, 1893 (언더웨어, p.60)



<그림6> 통 코르셋 (Support and Seduction, p.85)



<그림7> 뉴룩, 1947 (언더웨어, p.44)



<그림8> corselette, 1947년 (언더웨어, p.46)



<그림9> noblesse, 1990 (언더웨어, p.50)

신축성 있는 소재로 인해 움직임에 자유를 주게 되었다. 또한 과거 겉옷의 속에서 인체를 조각 하던 역할이 20세기 후반에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여성성의 상징으로서 겉옷으로 표출되었다.

III. 코르셋룩의 표현적 특성

여성들은 시대가 요구하는 미적인 조형성에 접근하기 위하여 고통을 감수하면서 코르셋을 착용해왔고 코르셋의 착용은 시대가 요구하는 미의식을 반영하는 의복의 실루엣 형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으며 이런 이유가 속옷의 겉옷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 할 수 있겠다.

속옷의 겉옷화 현상은 노출과 은폐, 정숙성과 비정숙성, 퇴폐적인 저속함과 고상함의 양면가치가 동시에 발생하는 세기말적 해체주의 복식의 대표적 현상이다. 특히 1990년대 패션에 자주 등장하는 코르셋은 의복에 가장 깊숙한 곳에 있으므로 신뢰와 최상의 모습을 표현하는 에로티시즘 표출의 대명사로 사용되고 있다. 90년대 패션에서의 코르셋의 사용은 의복과 관련된 관습적 주제인 성, 페시티즘, 신체적·심리적 압박감과 만족감의 유기적 연관성을 보여주며 의외적인 요소로서 등장하고 있다.³³⁾ 이것은 브라지어, 슬립, 가터벨트, 란제리를 비롯하여 코르셋, 페티코트 등 속옷으로 착용하던 것을 겉옷으로 변형시켜 여성의 섹시한 분위기를 표현하는 것으로 1973년 상탈 토마스가 캐미솔 룩을 발표한 이래, 80년대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속옷의 역할을 했던 코르셋이 겉옷화가 되면서 나타난 현상은 몸통을 조이는 기능은 코르셋과 같으나 제2의 피부로서의 코르셋(second skin corset)³⁴⁾의미를 띠면서 더 이상 코르셋이 불편한 기능적인 속옷의 역할만이 아닌 신체에 적절히 밀착된 새로운 스타일의 의복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속옷의 겉옷화가 일반화 되면서 특히 코르셋의 역할이 속옷에서 겉옷의 디자인에 응용되고 심지어는 그대로 착용되기까지 하면서 착장위치변화, 노출심화, 소재변화, 디테일변화, 겹수 변화, 패션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1. 착장위치변화

19세기 겉옷의 실루엣을 위한 체형 보정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코르셋은 20세기 말에 타인에게 보여주는 옷으로 은폐되고 감추어지던 본래



<그림10> 마돈나의
코르셋 룩, 1990
(Infra-Apparel, p.51)



<그림11> Jean Paul
Gautier Spring 1983
(Jean Paul Gautier,
p.15)



<그림12>
Valentino, Fall
1992,(Infra-Appa-
rel, p.70)



<그림13> Thierry
Mugler, Fall 1992,
(Infra-Apparel, p.56)



<그림14> Chole,
1999
(www. firstview.com)



<그림15> Chole, Fall
199 (www.
firstview.com)

의 기능과는 반대로 겉으로 드러나는 패션 아이템이 되었다.³⁵⁾

코르셋의 겉옷화 대표적인 디자이너 중의 하나인 Jean Paul Gautier는 “우리 시대의 패션에 터부란 없다. 속옷의 아름다움을 감추어 두는 것은 야까운 일이다.”라고 말하였고, 1983년 S/S 컬렉션에서 코르셋을 모티브로 한 드레스를 발표하였다<그림10>.

<그림11>은 1950년대의 Merry Widow로부터 영감을 얻은 이브닝드레스로 대담한 노출이 특징이다. 이러한 역사성을 지닌 코르셋 드레스는 자연스러우면서도 특이한 의복원형의 재배치를 보여준다.

Valentino는 1820년대의 퀼팅과 1930년대의 힙을 강조한 코르셋을 같이 결합한 것으로 이브닝가운 위에 가슴받이를 덧붙임으로써 역사적인 스타일을 재 등장시켜 우아한 균형미를 나타내었다<그림12>.

Thierry Mugler의 코르셋 슈트는 속옷과 겉옷의 분리를 하나로 표현했다<그림13>.

<그림14>는 코르셋의 형태를 그대로 겉옷화시킨 디자인으로 볼레로 가디건과 함께 여성미를 강조했다.

2. 노출심화

코르셋의 겉옷화 현상에 가장 두드러진 경향이 노출의 극대화로 1990년 이후부터 서양보다 비교적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는 동양에서도 유행하여, 일본에서는 91년 4월 ‘마돈나의 일본

공연 직후 시내 백화점 등의 속옷 판매장에서 레이스나 리본 장식의 브라 등을 찾는 젊은 여성들이 증가하였다’³⁶⁾는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속옷의 겉옷화는 일본을 비롯한 동양권에서도 유행하게 되었다.

미드리프(배꼽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아이템이며 심지어는 꽃무늬 등의 화려한 천으로 컵을 강조한 코르셋의 겉옷화 스타일을 쉽게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림15>는 수공예적인 작은 꽃무늬가 있는 여성스런 코르셋 형태로 가슴라인을 강조하기 위해 허리를 피트 시켜 가슴을 올린 피트 앤 글래머 스타일로 가슴 노출의 극대화를 볼 수 있다.

Gucci의 작품은 기본적인 코르셋 디자인에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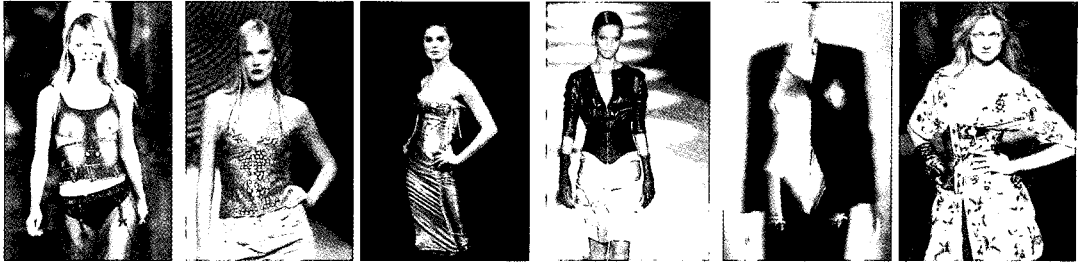
<그림16> Gucci, Fall
2003 (www.
firstview.com)



<그림17>
Gianfranco Ferre
Fall 2003 (www.
firstview.com)

슴과 허리를 다른 소재를 사용해 여성미를 더욱 강조시켜 간접적 노출을 보여준다<그림16>.

Gianfranco Ferre는 심플한 코르셋 디자인에 새틴 소재의 가슴 부분과 그 외의 전체적인 부분



<그림18> Seredinet Vassiliev 2003 Fall (www. firstview.com)

<그림19> Rocco Barocco Spring 2004(www. firstview.com)

<그림20> Dolce & Gabbana Fall 2003 (www. firstview.com)

<그림21> Gucci Fall 2003 (www. firstview.com)

<그림22> Jean Paul Gautier, 1990 (Infra-Apparel, p.9)

<그림23> Roberto Cavalli Spring 2003 (www. firstview.com)

은 레이스와 시드루 소재를 사용하여 피부와 함께 비치며, 면과 선으로 분할된 와이어 라인은 조형성이 돋보이며 직접적인 노출보다 더 자극적인 여성의 관능미를 볼 수 있다<그림17>.

3. 소재변화

어떤 틀을 만들기 위해 고래수염 등을 이용하여 형태를 만들었던 코르셋은 20세기에 들어 합성섬유의 발달과 함께 폴리에스테르(polyester)와 나일론(nylon)등으로 그 소재가 변화였고 최근에는 스트레치성이 가미된 혼합직물로 대체됨으로써 세련되고 부드러워졌으며 딱딱함으로 인한 착용의 불편이 많이 해소되었다. 과거의 허리를 조이는 역할이 많이 약화되었으며 대님이나 니트도 많이 쓰이고 있다.

또한 로맨틱시즘과 에로티시즘을 강조한 코르셋 룩에서는 시드루(See-through)스타일이 많이 사용되며, 에나멜, 금속성 소재와 같은 인공적이고 하이테크 소재 등의 시각적 효과에 그치지 않고 소재라는 일차적 관문을 넘어 연상(association), 다른 말로 관념 연합이라는 심리적 현상을 일으켜 자극적이고 노골적이지 않으면서도 은근하게 미묘한 충동을 일으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게 하는 효과를 내게 만든다.³⁷⁾

Seredinet Vassiliev의 작품은 진 소재로 미래적인 느낌이 강하게 표현했으며 진 특유의 그런지 스타일(grunge style)과 속옷의 에로틱한 스타일의 조화를 잘 나타내고 있다<그림18>.

Rocco Barocco와 Dolce & Gabbana는 광택 소

재를 사용해 신체에 더욱 밀착시켜 에로틱한 무드를 만들어 냈다<그림19, 20>.

<그림21>은 Gucci의 디자인으로 코르셋을 응용한 가죽 소재 자켓으로 몸에 밀착된 여성스런 디자인이다.

4. 디테일변화

속옷이 겉옷화 되면서 장식적인 면이나 디테일적인 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Jean Paul Gautier가 1990년 스트라이프 검정색을 슈트위에 핑크색 새틴의 신축성 있는 코르셋을 덧입은 디자인을 발표하였는데 이것은 원추형으로 가슴을 강조하고 바디슈트의 아래에는 가터벨트(garter belt)로 장식한 것으로 코르셋이나 가터벨트가 지닌 본래의 기능에서 의복의 장식적인 요소로 변화한 예이다<그림22>.

<그림23,24>는 블라우스 위에 벨트를 한 형태로 코르셋을 벨트화 시켜 허리 라인을 강조한



<그림24> Gianfranco Ferré Spring 2005 (www. firstview.com)



<그림25> Rocco Barocco Spring 2004 (www. firstview.com)



<그림26> Dolce & Gabbana, Spring 2005 (www.firstview.com)



<그림27> Antonio Berardi, Fall 2004 (www.firstview.com)



<그림28> Roberto Cavalli, Fall 2004 (www.firstview.com)



<그림29> Antonio Berardi, Fall 2004 (www.firstview.com)



<그림30> Antonio Berardi, Spring 2001 (www.firstview.com)



<그림31> Roberto Cavalli, Fall 2002 (www.firstview.com)

스타일로 속에 입던 코르셋을 겉옷의 디테일로 사용한 형태이다.

<그림25>는 코르셋에 지퍼와 벨트를 이용해 디테일적 요소를 가미한 스타일이다.

이것은 과거에는 겉옷에 활용하기를 꺼렸던 것을 예술적인 시각으로 재조명하여 변화를 준 것이다.

5. 겹수 변화

최근에는 많은 패션디자이너들이 가죽이나 메탈 소재 등을 이용한 겹쳐 입는 스타일을 통해 더 강렬하고 새로운 느낌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겹쳐 입는 스타일은 90년대 유행의 한 주류인 그런지 스타일에서 다양한 아이템을 몇 개씩 겹쳐 입는 레이어드 룩과 비교할 때, 소재나 디자인에서 에로틱한 무드로 레이어링 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이 다르다.

이러한 겹쳐 입기, 겹수의 변화는 여성의 성과 자유에의 의지가 에로틱하게 직선적으로 과감하게 표현되고 있기 때문이며, 현대여성의 자유선택에의 의지가 미적으로 승화되어 혁신적인 우아함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³⁸⁾

<그림26,27>은 민소매 원피스 위에 코르셋을 베스트 형식으로 입혀 여성스러움과 관능미를 강조하였다.

타이트하게 밀착되는 보라색 와이드 벨트 형태의 코르셋은 색상의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매치와 함께 유사한 소재의 이중적 겹침의 느낌이 더욱 에로틱함을 강조하였다<그림28>.

6. 패션변화

현대는 우주시대, 정보화 시대, 전자공학시대, 탈산업사회, 초 산업사회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 패션에서는 인간중심의 사고와 접목시켜 디자인은 최소화, 편안함, 쾌적함, 활동성과 기능성이 개성적인 스타일로 디자인되고 있다.

20세기 후반부에 접어들어 싸이키델릭 아트, 비닐·인공색의 시대, 팝아트 등의 미래지향형 패션의 유행으로 미래주의 컬렉션들이 자주 선보였다. 현대 패션은 코르셋의 겉옷화라는 복고주의 경향에 미래적인 요소를 첨가하여 나타나고 있다.

Jean Paul Gautier는 1990년 세계 27개국을 돌면서 순회 공연한 팝가수 마돈나의 '블론드 앰비션 투어(Blond ambition tour)'를 위해서 가슴이 뽐족한 콘 코르셋을 제작하여 극단적이고 장난기 섞인 유머감을 나타내었다. 이 코르셋 룩은 다음세기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것으로 미래적인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다<그림10, 18>.

Antonio Berardi의 작품은 가죽 소재를 이용한 것으로 신체에 밀착된 사이버적인 요소가 눈에 띄는 스타일이다<그림29>.

<그림30>은 금속성 또는 광택성 소재를 사용해 단순한 라인으로 미래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31>은 특수가공된 소재로 인체에 완전히 밀착시켜 여성의 아름다운 신체선을 강조하여 섹시한 여성미를 나타내었다.

IV. 의상 디자인과 패턴 제작

코르셋룩의 패션디자인작품을 제작하기 위하여 현대패션에 나타난 코르셋룩의 표현적 특성을 바탕으로 노출과 피트성을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여성의 가슴을 부각시킨 입체적인 브래지어 형태를 응용하여 코르셋룩의 표현적 특성을 표현하고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입체재단과 평면재단방법을 사용하여 패턴을 제작하고자 한다. 속옷의 겉옷화에 적용되는 의복디자인 작품을 제작하기 위하여 입체재단에 의한 방법으로 1작품, 평면패턴 방법으로 2작품을 제작하였다. 치수는 표준체형과 유사한 바디를 한 개 선정하여 그 사이즈를 기초로 하였다.

바디 사이즈는 <표1>과 같다. 인체표준치수는 2004년도 Size Korea의 계측³⁹⁾을 참고하였다.

본 작품은 패턴제작에 중점을 두었으므로 실물작품은 주로 흰색 머슬린을 사용하여 제작하였으며, 절개선에 넣은 테입도 흰색의 테입을 사용하였다.

<표1> 인체표준치수 및 바디 사이즈

구분		가슴 둘레	엉덩이 둘레	허리 둘레	어깨사이 길이	등길이	유장	유폭
인체 표준 치수	20대	82.2	90.8	67.3	39.9	38.1	24.9	17.3
	30대	85.3	91.2	72.5	39.5	38.4	26.2	17.6
바디치수		86 (84a)	88	66.6	38	38	26	16

(a: cap을 착용하지 않은 치수)

1. 작품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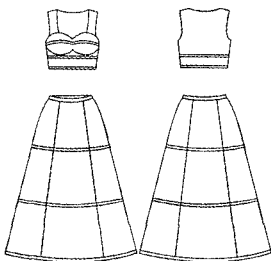
작품 I은 코르셋의 표현적 특성 중 어깨부분은 넓은 띠로 구성함으로써 목 아래 부분과 팔을 노출하였다. 상의는 길이를 짧게 하여 허리부분을 노출하여 여성의 섹시함을 나타내었다. 디테일과 착장위치 변화의 측면에서는 과거 코르셋에 사용되었던 뼈대를 넣었던 효과를 내기 위하여 절개선마다 테입을 봉제하여 디테일적인 효과를 내었고, 코르셋과 페티코트를 겹옷으로 착용하게 하였다.

코르셋 룩의 상의와 페티코트 룩의 하의 모두 다트는 없애고 수평절개를 하였다. 또한 페티코트 룩의 하의는 밑단을 부풀려 과장된 벨형 실루엣으로 디자인하여 풍부한 실루엣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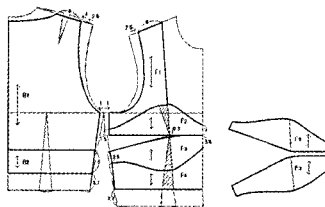
<그림32>는 도식화이며, <그림33,34>는 작품 I의 패턴이다. <그림35>는 패턴을 봉제하여 제작한 실물사진이다.

2. 작품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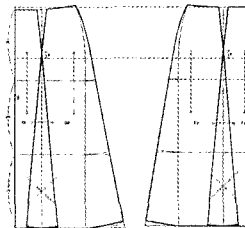
작품 II는 코르셋의 표현적 특성 중 속옷으로 착용되었던 코르셋을 겹옷으로 착용하게 하면서 하의에 스커트를 붙여 원피스화 시킨 디자인이다. 노출과 디테일 변화의 측면에서는 어깨, 팔과 슬릿에 의한 다리를 노출하였고, 절개선마다 테입을 봉제하여 디테일의 효과를 내었으며, 수직 및 수평 절개선을 통해 다아트를 없애주어 피트성을 부각시켰다. 스커트 밑단은 무릎선까지 절개선으로 트임을 주어 에로틱함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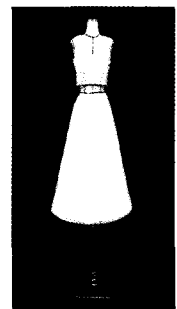
<그림32> 작품 I의 도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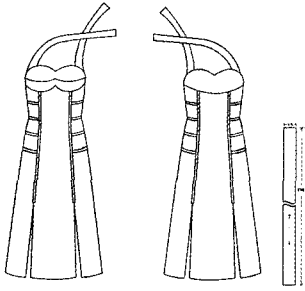
<그림33> 작품 I의 상의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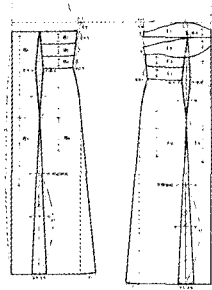
<그림34> 작품 I의 하의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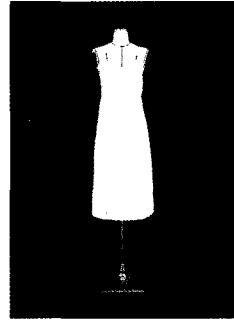
<그림35> 작품 I의 실물사진



<그림36> 작품 II의 도식화



<그림37> 작품 II의 패턴



<그림38> 작품 II의 실물사진

<그림36>은 도식화이며, <그림37>은 코르셋을 응용한 원피스패턴이다. <그림38>은 코르셋 패턴을 봉제하여 제작한 실물 사진이다.

코르셋 패턴을 봉제하여 제작한 실물사진이다.

V. 결론

3. 작품 III

본 연구에서 코르셋의 표현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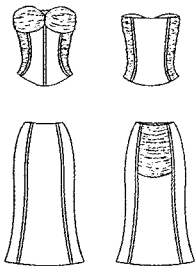
작품 III은 코르셋의 표현적 특성 중 디테일을 응용한 디자인이다. 노출과 착장위치 변화의 측면에서는 어깨부분을 전체 노출하였고, 코르셋을 겹옷으로 착용하게 하였다. 가슴과 허리 옆선에 셔링으로 주름을 잡아 여성스러움을 강조했으며, 신체의 굴곡을 강조하여 에로틱함을 표현하였다. 스커트 엉덩이 부분의 주름 강조로 버슬 시대의 특징을 나타낸 디자인이며, 수직절개선을 이용하여 셔링으로 인한 부피감을 길이로 분산시켰다.

첫째, 코르셋이 속옷으로서의 역할을 주던 과거 코르셋과는 다르게 속옷 같은 겹옷, 겹옷 위에 입는 속옷 등 일상복과 속옷이 믹스된 스타일이 계속해서 디자이너들의 컬렉션을 통해 발표되면서 코르셋은 더 이상 속옷이 아닌 하나의 완전한 패션스타일로 인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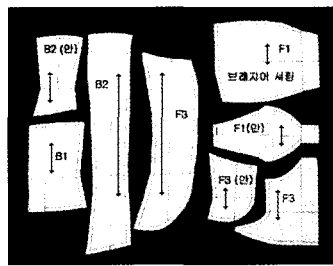
<그림39>는 셔링을 응용한 코르셋의 도식화이다.

둘째, 은폐되어왔던 코르셋의 소재나 형태가 그대로 겹옷으로 나오게 됨으로서 노출의 심화 현상이 나타났다. 최근 들어서는 네크라인을 깊게 파서 가슴부위로 시선을 끌게 하거나 등과 엉덩이를 대담하게 복식 밖으로 직접 드러내거나 엇보이게 하여 인체의 선을 표현하는 성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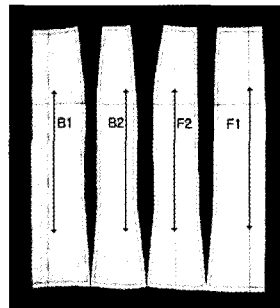
<그림40>은 작품 II의 패턴이다. <그림41>은



<그림39> 작품 III의 도식화



<그림40> 작품 III의 드레이핑 패턴



<그림41> 작품 III의 실물사진

매력을 나타내게 하는 디자인이 많이 나오고 있다.

셋째, 코르셋이 걸옷화 되면서 디자인에 중점을 두어 얇게 비치는 시스루 소재나 특수 가공된 직물, 에나멜, 신소재 등 소재에 제한 없이 다양하게 사용됨으로써 걸옷과 속옷의 소재구분을 없애지게 했을 뿐 아니라 계절에도 상관없이 입을 수 있도록 모든 시즌에 다양한 소재가 등장하여 현대적 감각에 맞는 소재변화 현상이 나타났다.

넷째, 기능적인 역할에 중점을 두었던 속옷으로서의 코르셋이 걸옷화 되면서 타이트 레이싱(tight-lacing)이나 지퍼, 벨트 등의 디테일로 장식화 시킴으로 과거에는 걸옷에 활용하기를 꺼렸던 것을 예술적인 시각으로 재조명하여 변화를 주어 디테일적인 변화가 생겼다.

다섯째, 겹쳐 입기, 겹 수의 변화는 여성의 성과 자유에의 의지가 에로틱하게 직선적으로 과감하게 표현되고 있기 때문이며, 현대여성의 겹쳐 입는 스타일을 통해 더 강렬하고 새로운 느낌을 표현하며 자유선택에의 의지가 미적으로 승화되어 혁신적인 우아함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섯째, 현대 패션은 코르셋의 걸옷화라는 복고주의 경향에 미래적인 요소를 첨가하여 인간 중심의 사고와 접목시켜 디자인은 최소화, 편안함, 쾌적함, 활동성과 기능성이 개성적인 스타일로 디자인되고 있다.

이상의 코르셋의 표현적 특성을 기초로 하여 총 3작품의 실물디자인 및 패턴을 제작하였다. 각 패턴은 평면패턴 2개, 입체패턴 1개로 나누어 제작하였고, 패턴제작을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평면 제도법은 바디 사이즈를 기본으로 하였으나 바디에 착장을 했을 때 조금씩 오차가 생겨 다시 보정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그러나 손쉽게 그릴 수 있고 원단의 손실이 적다는 장점이 있었다. 입체제도법은 직접 바디에 드레이핑을 하였기 때문에 바디에 착장했을 때 오차가 적었다. 다만 머슬린의 손실과 디자인에 따라 작업시간이 많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므로 속옷룩 중에서 몸에 밀착되는 형태의 의복은 입체

제도법이 더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단, 신축성 있는 소재인 경우에는 평면제도나 입체제도 모두 치수를 약간 작게 하여 패턴을 제작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코르셋룩은 격식을 갖춘 옷차림에서 해방되어 무엇보다도 기능성, 효율성, 활동성에 중점을 두어 가벼운 옷차림을 즐기려는 욕망에서 비롯되었으며, 속옷을 보이지 않게 입어야 한다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의복의 겉과 안의 구분을 모호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코르셋이 가진 본연의 기능인 보호의 기능에서 벗어나 걸옷에 접목시킨 복식형태를 창안함으로써, 코르셋의 걸옷화 현상이 단지 시각적인 자극만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복식조형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어떠한 디자인의 형태를 취하여 나타나는 상관없이 신소재의 개발과 함께 필연적으로 코르셋 룩은 중요한 아이템으로 현재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 패션의 주요 테마로 작용하리라 본다.

참고문헌

- 1) Newman, K., Bressler, K. (1997). *A Century of Lingerie, Royston*. New Jersey: Chartwell Books, p.11.
- 2) 이상례 (1997). 세기말 현상으로 본 속옷의 걸옷화 현상. *복식* 35, p.325.
- 3) 고영아, 최현숙 (2000). Corset의 Supra현상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복식* 50(4), p.166.
- 4) 김교육 (1976). Bustle의상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인문과학논집* 9, p.103-123.
- 5) 최영옥 (1983). Corset에 관한 고찰. *안동대학교 논문집* 5(1), pp.655-682.
- 6) 이상례 (1997). Op. cit., pp.325-341.
- 7) 라의숙, 남운자 (1998). 현대복식에 나타난 Infra-Apparel.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논집* 2(1), pp.51-62.
- 8) 양숙희, 이의정 (1999). 패션에 나타난 페티시즘 연구: 언더웨어 페티시. *한국의류학회*

- 지 23(2), pp.272-283.
- 9) 최 원 (1995). 서양여자 속옷을 응용한 의상 디자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0) 고영아, 최현숙 (2000). Op. cit., pp.165-180.
 - 11) 최은희, 송미령 (2001). 인프라 현상을 활용한 드레스 디자인 개발. *복식문화연구* 9(4), pp.549-561.
 - 12) 박옥련 (1994). *복식과 인간* 부산: 경성대학교 출판부, p.59.
 - 13) 이의정, 김소영 (2001). *언더웨어*. 서울: 교학연구사, p.54.
 - 14) Elizabeth, E. (1978). *Dress and undress: A history of women's underwear*. New York: Drama Book Specialists, p.11.
 - 15) 이의정, 양숙희 (1998). *페티시즘*. 서울: 경춘사, p.79.
 - 16) Ibid., p.80.
 - 17) Millia, D. (1948). *The book of costume*, New York: Crown, p.181.
 - 18) 바스핀느 (basquine): 코르셋의 일종으로 앞이나 옆, 또는 뒤가 트인 조끼 형식이다. 바스핀느의 구성은 풀 먹인 린넨천을 두 겹으로 재단하고 그 사이에 바스핀느(나무 뿌리나 고래수염, 금속, 상아 등을 재료로 하여 만든 얇은 패드)를 넣어 딱딱하게 부풀리면서 형태를 만들었다.
 - 19) 꼬르삐께 (corps-pique): 바스핀느보다 더 강하게 몸을 조일 수 있도록 재료와 구성법이 한층 발달된 것으로 형태는 바스핀느와 별 차이가 없으나 두 겹 이상의 린넨을 겹쳐서 누비고 바스핀느의 딱딱함을 보강시킨 것이 특징이다.
 - 20) 정홍숙 (1993). *복식문화사. 서양복식사*. 서울: 교문사, p.140.
 - 21) 이정옥, 최영옥, 최경순 (1987). *서양복식사*. 서울: 형설출판사, pp.204-205.
 - 22) Ibid., p.253.
 - 23) 거시트 (gussets): 슬릿 포켓이나 장갑 등을 보강하기 위해서 붙여진 삼각형의 덧붙인 천을 말한다.
 - 24) Harold, K. (2001). *Extreme beauty: The body transformed*. New York: Metropolitan Museum of Art, p.55.
 - 25) Cox, C. (2000). *Lingerie: A lexicon of style. Italy: Co & Bear Production Hongkong: Periplus*, p.16.
 - 26) 이의정, 김소영 (2001). Op. cit., p.60.
 - 27) Phyllis, G. Tortora & Eubank, K. (1994). *A survey of historic costume: A history of Western dress*. New York: Fairchild Publications, p.393.
 - 28) 정 현 (1997). 인체 속박형 의복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8.
 - 29) Newman, K., Bressler, K. (1997). *A century of lingerie*. New Jersey: Chart Well Books, p.156.
 - 30) Chenoune, F. (1999). *Beneath it all: A century of French lingerie*. New York: Rizzoli, p.156.
 - 31) Cox, C. (2000). Op. cit., p.44.
 - 32) 고영아 (1998). Corset의 Supra현상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동덕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7.
 - 33) Martin, R., Koda, H., 이선재 역 (1996). *Infra Apparel*. 서울: 경춘사, pp.47-48.
 - 34) Farid, C. (1996). *Jean Paul Gaultier*. London: Thames and Hudson, p.160.
 - 35) 이상례 (1997). 세기말 현상으로 본 속옷의 길옷화 현상. *복식* 35, p.331.
 - 36) 한일신간. 1992년 2월 13일.
 - 37) 전해정 (1993). 복식의 에로티즘 양식. 서울 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94.
 - 38) Barnard, M. (1996). *Fashion as Communication*. New York: Routledge, pp.149-150.
 - 39)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2004). *Size Korea 2004: 표준체형 한국인*.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pp.15-20.